

‘불볕더위’ 폭염주의보

어제 구례·순천·나주 전국서 첫 발효

광주·전남 열대야 ‘잠 못드는 밤’

중복(中伏)인 25일 순천·나주·구례에 폭염주의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구례의 낮 최고기온은 33.6도(열지수 37도)까지 치솟았으며 ▲순천 31.7도(“ 37도) ▲나주 32.7도(“ 35도)를 기록했다. 광양은 이날 33.9도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낮 기온이 높았으나, 열지수가 낮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다.

열지수(熱指數·습도와 기온을 고려,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가 ▲54 이상이면 열사·일사병 위험이 매우 높으며 ▲41~54는 신체활동시 열경련·일사병 피해 위험이 있고 ▲32~41은 주의를 요하는 단계다.

기상청은 “26일 자정을 기해 광주와 담양·곡성·장성·화순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확대·발효된다”면서 “장마 뒤 찾아온 무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구례지역의 화염사와 천은사, 피아골 계곡 등에는 더위를 피해 찾은 지역민과 피서객들로 크게 붐볐다. 나주 중흥골드스와 리조트에도 평소보다 500여 명이 더 많은 2천300여 명의 물놀이객들이 몰려 더위를 식했다.

중복이 걸친 광주 무등산 증심사와 원효사 계곡, 시내 음식점에는 ‘복 달임’을 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의 발

길이 이어졌으며, 냉방 시설이 잘된 대형 마트에다 평소보다 10% 더 많은 쇼핑객이 찾았다.

광주는 25일 최저기온이 26도로 울머 두 번째 열대야(熱帶夜·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 현상을 보여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전남도 ▲안도 25.8도 ▲고흥 25.7도 ▲해남 25.3도 등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26일 낮 순천과 광양의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 무더위가 지속되고, 당분간 열대야도 계속

▲폭염특보=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최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폭염 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낮 최고 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특보제는 올 7~9월까지 처음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정식 도입된다.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폭염 대비 건강·안전 관리 요령

소방방재청은 25일 폭염에 대비한 건강 및 안전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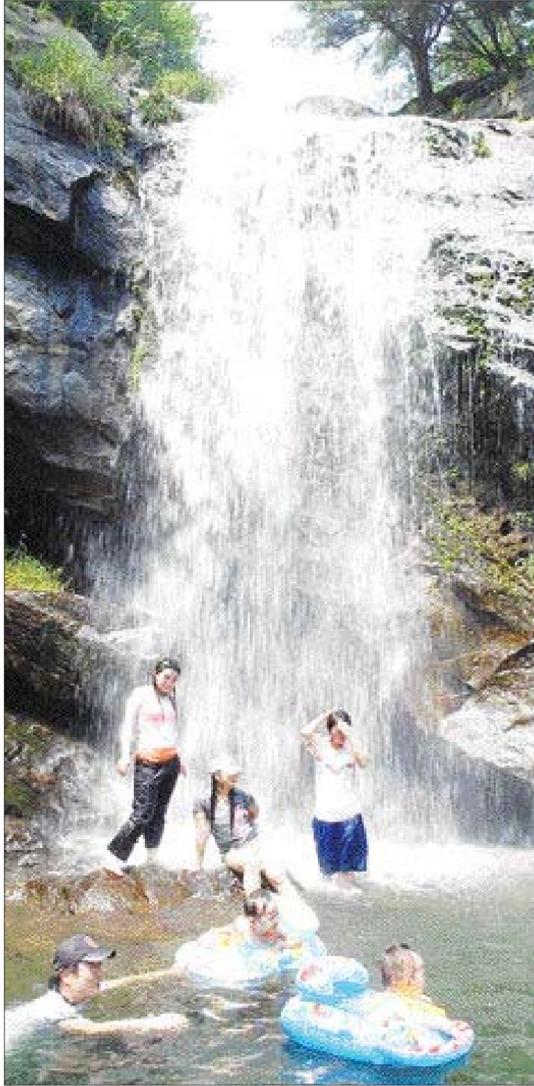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 때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땀이 많은 모자를 써 햇볕을 피해야 한다.

또 물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많은 양을 마시고, 식사는 가볍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 탈수를 유발하는 알코올 음료를 피하고,

땀은 신속하게 가능한 피부부를 많이 가리게 잡는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공사장·제철소·용광로 등 산업현장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을 피하고, 하루에 최소 2시간 냉방이 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지내는 가족·친구·이웃도 살펴야 한다. 냉방기를 사용할 때는 온도 차이를 5도 내외로 유지해야 냉방병을 피할 수 있다.



폭포아래 피서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25일, 구례군 산동면 수기리 수락폭포에서 피서객들이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구례지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33.6도까지 치솟았다. /구례=위직방기자 jrwi@kwangju.co.kr

고의 사고로 보험 사기 조폭 등 21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손해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신양 관광과 폭력조직원 김모(24·광주시 북구)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손모(30)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 밤 11시 40분께 후배 K(23)씨등 3명과 함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김모(26·광주시 남구 백운동)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정면 충돌을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김씨가 가입한 S보험사로부터 5차체에 걸쳐 보험금 2천350만원 상당을 받아챘던 혐의다.

또 불구속된 손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시내 곳곳에서 3~5명씩 번갈아 가며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4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조로 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음란물 유포

광주지법, 40대 징유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각종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나모(3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전신할 수 없음에도 P2P(Peer to Peer·개인대 개인) 서비스 방식의 파일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P사이트에서 815편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1편당 15원에서 45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다운로드가 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광역시 중흥동 소재의 중흥동주민센터에서는 3,813 회대당까지 100%의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문의: 367-9000

나원침 (7271) 김종두



다들 물어봐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정호, 연수, 도원, 대덕동 KCC광호, 시스텔, 호성산, 시공

교장·교감 비방 전직교사 손해 판결

○인사에 불만을 품고 교장·교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전직 교사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5일 광주 D중학교 전 교장 박모(64)·전 교감 서모(62)씨 등 2명이 전직 교사 오모(6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일부 사실이라도 특정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오씨는 다른 학교로 전출시킨 데 앙심을 품고 광주지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민사소송을 제기.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맛비 왜 적게 내렸나?

장마전선 풍부한 수증기 유입 안돼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는 광주지방기상청의 예보가 여지없이 빗나갔다.

지난 6월 21일 시작, 7월 24일 끝난 올 장마기간은 지난해(6월 22일~7월 23일)와 같은 33일. 하지만 광주에 내린 장맛비는 277mm로 전년도 484.3mm의 57%에 그쳤다.

전남 지역도 ▲목포 216.1mm(전년도 348.3mm) ▲안도 323.9mm

(526.3mm) ▲여수 375.6mm(630.3mm) ▲진도 270mm(410.4mm) ▲순천 252.4mm(551.8mm) ▲장흥 302.0mm(535.5mm) ▲해남 246mm(392.5mm) ▲고흥 358.5mm(561mm) 등에 불과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일정치 못하면서 올해는 광주·전남지역에 정

체하는 기간이 짧았다”며 “장마전선의 풍부한 수증기가 유입되지 못하면서 강수량이 평년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마기간에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마른 장마’의 한 이유. 지난해의 경우 장마기간인 7월 9일에 태풍 ‘에위니아’(WINIAR)가 진도 해안에 상륙하면서 고흥 204.5mm를 최고로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렸다. 하지만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마니’(MAN-YI)는 폭우 대신 강풍 피해만 입히고 소멸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용역업체 돈 받아 해외 여행 구례군청 공무원 등 5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25일 용역업체 지원을 받아 공차 해외시찰을 다녀온(본보 6월 20일자 7면) 구례군청 황모(55) 과장 등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용역업체 S건설 대표 임모(49)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과장 등은 S건설 대표 임씨 등 용역업체 2개 회사로부터

2천17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프랑스·독일·스위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황 과장 등은 지난해 3월 구례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들 업체에 9억원 상당의 설계·용역 업무를 맡기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행경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산아싱(주) (062)363-4800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